

# 국제스포츠 경기대회 개최 시 군의 역할 분석 : 1988 서울올림픽 경기대회 및 2018 평창동계올림픽 경기 대회를 중심으로

최정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 논문요약

본 연구는 국가시책인 국제스포츠 경기대회 개최 시 군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가를 분석하였다. 전통적으로 군은 국가안보와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데 사용되었다. 그러나 국제스포츠 경기대회에서 군은 다양한 비군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군은 1988 서울올림픽 경기대회와 2018 평창동계올림픽 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인력과 장비, 물자 및 시설물을 지원하였다. 무엇보다도 당시 민간 부문보다 상대적으로 지원 여건이 우위에 있던 종목의 선수양성과 지원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경기력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하였다. 양 개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조직된 민관군협력체계는 이후 한국이 국제스포츠 경기대회를 개최할 시 지원모델이 되었다. 군은 국가방위의 기본 임무에 추가하여 국제스포츠 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한국의 스포츠 외교 및 스포츠 강국으로 부상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였다. 또한, 전통적인 군사적 역할뿐만 아니라 비군사적 분야로 군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음에 따라 군사적 위협과 비군사적위협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균형점을 유지할 필요성도 제기하였다.

**주제어** : 국제스포츠 경기대회, 서울올림픽 경기대회, 평창동계올림픽 경기대회, 군사적 위협, 비군사적위협

## I. 서론

군은 조직화한 폭력을 합법적으로 수용하면서 그 사회의 군사적 안전을 책임지는 조직체로써 생겨났다(화랑대연구소 1992a, 3). 이것은 안보의 범위가 오늘날과 같이 확대되지 않은 상황에서 군이 주로 내외부의 적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는 임무에 치중하는 역할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음을 함축하고 있다. 한국 현대사에서 군이 정치·사회적으로 주요 집단으로 등장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김영명 1986, 83-104; 화랑대 연구소 1992b, 15-81; 홍두승 1993, 35-51, 86-90; 한용원 1993, 15-81; 백종천 외 1994, 43-53).

시대의 변화에 따라 안보 개념의 확장과 더불어 군의 역할도 점차 군사 중심에서 비군사적인 역할까지 확대되어 가고 있다. 즉 전쟁 수행을 위한 교육훈련과 작전계획 수립 등에 추가하여 다양하게 변화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인 경향을 반영하여 군도 이에 걸맞게 보다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의 스포츠는 1980년대 말부터 국제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경기력뿐만 아니라 국제스포츠 경기대회를 유치하여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국가의 위상을 드높이는 데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 '88서울올림픽 경기대회는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리고 스포츠 강국으로 거듭나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1980년(모스크바), 1984년(LA) 올림픽대회가 동서 간 냉전으로 반쪽 대회가 되었던 것에 비해 1988년 서울올림픽은 자유 진영과 공산 진영 국가 대부분이 참가한 평화와 화합의 장으로서 의미를 가진 대회이기도 하였다(서울역사편찬회 2019, 536-537). 또한, 평창 동계올림픽대회를 개최함으로써 한국은 전 세계 4대(동·하계올림픽, 월드컵, 육상선수권) 스포츠 이벤트를 모두 개최한 5번째 국가라는 위업을 달성하였다.

동·하계올림픽경기대회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첫째, 올림픽 경기대회 유치가 갖는 정치·경제·사회적 효과와 관련된

내용을 분석하였다(김경진 2021, 53-92; 김영갑 2018, 163-183; 박보현 2018, 789-812; 김재우·최지훈 2018, 57-73; 김명섭·양준석 2014, 271-302; 박경호 2011, 47-57; 박기안 등 1988, 25-36). 이러한 연구들은 국제스포츠 경기대회 유치에 위한 남북한 간의 경쟁, 올림픽 경기대회 개최를 통한 한국의 경제발전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둘째, '88서울 올림픽 경기대회와 2018 평창동계올림픽 경기대회를 문화적인 측면에서 상호 비교·분석을 통해 한국의 전통문화를 세계에 홍보하는 창구로서 국제스포츠 경기대회가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김산효 2019, 185-218; 이지연·손정우 2021, 187-206). 셋째, '88서울올림픽 경기대회와 2018 평창동계올림픽 경기대회의 조직위원회를 분석하여 수평적 네트워크 거버넌스 특징을 가진 평창올림픽 거버넌스가 거버넌스 실패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조정기능을 수행하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함을 지적하고 있다(임도빈 외 3 2016, 149-182). 넷째, 서울올림픽을 정권의 정당성 확보, 지배 이데올로기의 정당화 수단으로 활용했으며 올림픽기념관의 전시물과 기념식은 이러한 기억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이종원 2006, 1-12; 유혜진·천혜정 2014, 151-183).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국제스포츠 경기대회 개최와 관련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체육 및 예술적인 의미와 영향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당시 정부시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 및 체육계, 민간단체들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지원하였던 군의 역할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편이다. 군은 북한의 방해 공작과 테러 등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경계 및 안전지원활동을 비롯하여 병력, 장비, 물자 및 시설 지원과 군인 선수를 양성하여 대회에 참가시키는 등 두 대회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양개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종료 시까지 군의 직·간접적인 지원활동을 분석하여 한국이 스포츠 강국으로 부상하는 데 일익을 담당했음을 밝히고자 한다. 즉, 군의 양개 대회 지원활동이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분석한 이후 그것이 한국 체육발전에 미친 영향을 도출하였다.

연구를 위하여 '88서울올림픽 경기대회 및 2018 평창동계올림픽 경기

대회 지원활동 관련 군의 1차 사료, 국방부와 지자체에서 발간한 공간사, 기록 영상, 단행본, 양개 대회 관련 연구논문 등 관련 문헌을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제2장에서 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논의한 후, 제3장에서 '88서울올림픽 경기대회 시 군의 역할, 제4장에서 2018 평창동계올림픽 경기대회 시 군의 역할을 각각 분석하였다. 결론에서는 연구결과가 한국 체육발전에 갖는 함의와 군사 및 비군사 위협에 대한 군의 균형적인 대응이 필요함을 제기하였다.

연구를 통하여 국제스포츠 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군의 전문화된 분야를 활용한 선수양성, 분야별 경기지원을 통해 군이 성공적인 국제스포츠경기대회 개최와 한국체육의 발전에 기여했음을 알 수 있었다.

## II. 군의 역할에 대한 이론적 논의

### 1. 군의 기능

군의 기본적 기능은 그 나라의 안전보장에 유지에 있다. 즉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위협에 대해 그 나라의 정치·경제 및 사회적 제도의 안전을 도모하고 정치적 효과를 달성하려는 군사적 안전보장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는 그 나라의 영토적 그리고 조직적인 면에서 작용하는 국가전복의 기도와 국가를 약체화시키고 파괴하려는 노력을 무산시키려는 국가적 안전보장을 포함한다(국방부 1990a, 13).

군이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군사적 안전보장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기본적 기능은 '무력의 사용'에 있고 그 책무는 '사회의 군사적 안전보장'에 있다. 이러한 기본적 기능에 추가하여 파생적인 기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군의 교육적 기능으로 군이 현대적 장비의 사용이나 관리 또는 조직의 운영에 관한 기술을 교육하는 것이다(해군본부 1999, 132-13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20, 548-549). 둘째, 군의 사회적 기능으로 군에 입대한 장정들에게 집단적 조직사회 적응과 근대적인 정치사회의 시민으

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한다(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20, 467-497). 셋째, 군의 근대화 기능으로 군에서 기술·행정·과학 등을 배운 인력이 사회로 진출하여 전파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국방부 2015, 189-190).

이렇듯 군은 합법적 무력관리를 통해 국가의 안전보장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가적인 기능 수행을 통해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 2. 군사력의 역할

군사력은 “국가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혹은 대외정책을 효과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보호하고 유지하는 특정화시킨 힘”(육군사관학교 2006, 43)이다. 또는,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국력의 일부로서 군사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군사적 역량”(조남진 2010, 59)을 말한다. 군사력의 기능은 파괴력(물리력)으로서 분쟁을 억지하는 기능과 억지가 무너지는 경우 대처하는 저항적인 기능의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이외에도 국가 최후의 공권력으로써 비상사태 발생 시 국내질서를 유지하며, 재해·재난지원 등의 비군사적위협에 대비한 작전과 평화유지활동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비군사적위협은 군사적 차원의 전통적 국가안보에서 테러·대량살상무기·마약 및 범죄, 재해 및 재난, 경제적 가난과 인권침해 등 비군사적 차원의 인간안보로 확대되고 있다(국방대학교 2015, 231).

이러한 환경 속에서 아래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군사력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첫째, 군사력을 사용하여 자국의 의지를 타국에 강제하여 국가이익을 힘으로 달성하는 기능이다. 둘째, 적대국이 무력을 통해서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고자 할 때 이것에 대항하는 거부기능이다. 셋째, 적대국의 도발을 하기 이전에 도발의지를 무력화하거나 다른 곳으로 전환시키는 억지기능이다. 다섯째, 다양한 국가정책을 추진하는 도구로서 국책(외교정책) 지원 기능이다(육군사관학교 2006, 54-58).

<표 1> 군사력의 다양한 기능

군사력의 기능	주요 사례
본질적 기능	공격, 무력 현시, 방어·저항 기능, 억제기능
치안유지	국내 비상사태 시 질서유지
국가행사 지원	경계·안전지원, 국가시책 사업 지원
민생협력	응급환자 수송, 재외국민 보호·구출, 재해복구 지원
국민교육	규율, 도덕, 보건위생 교육
기술개발	첨단병기기술 개발
외교지원 (국책수행)	유학생 교류, 연합훈련, 재해복구 파견, PKO파견
경제적 지원	방위산업, 무기 수출

출처: (육군사관학교 1996, 59). 토대로 재작성

군사력은 사용되는 공간에 따라 육군전력, 해상전력, 항공우주전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공간에 군사력 유형을 구분하는 것이 점차 모호해지고 있으며, 전 영역 간의 합동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국방대학교 2015, 178-180).

위에서 살펴본 군과 군사력의 기능과 역할을 볼 때, 군은 본질적인 존재목적인 군사력을 사용하여 전쟁을 억제하고 방지하는 군사적 차원 외에 비군사적 차원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도록 운용될 수 있다. 즉, 군의 활동 영역은 전장(戰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있으며 점차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군의 역할은 대부분 비가시적이고, 위기 상황 시 외에는 드러나지 않아서 그 중요성이 쉽게 간과되는 경향이 있다.

### III. 1988년 서울올림픽 경기대회 지원활동

#### 1. '88서울올림픽 경기대회 개요

서울올림픽 경기대회 유치는 1978년 9월 서울에서 개최되었던 제24회 세계사격선수권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친 후 국제대회 개최에 대한 자신감

을 얻은 것이 계기가 되었다. 1981년 2월 26일 정식으로 유치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같은 해 9월 30일 독일 바덴바덴에서 제24회 하계올림픽 개최지로 서울이 결정되었다(대한민국 정부 1987, 107-151; 국방부 1990b, 91-92; 장지량 2006, 400-403).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를 위해 범국가적으로 지원사업이 이루어졌고,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SLOOG)를 중심으로 정부 및 관계기관들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였다(서울역사편찬원 2019, 506-508).

제24회 서울올림픽경기대회는 1988년 9월 17일부터 10월 2일까지 서울 및 경기지역과 4개 지방도시(총 34개 경기장과 72개 연습장 및 각 행사장)에서 개최되었다. 경기는 정식종목 23개, 시범종목 2개(야구, 태권도), 전시종목 2개(배드민턴, 볼링)로 대회 사상 가장 큰 규모를 기록하였다. 서울올림픽 경기대회에는 160개국 총 3만 944명(선수, 임원단 : 1만 3,674명, 국제임원 : 6,670명, 보도진 : 1만 600명)이 참가했고 대회 운영 요원 7만 2,904명, 관중 270만 명, 관광객 24만 명이 참여하였다. 대한민국은 총 금메달 237개 중에서 12개를 획득하여 세계 4위라는 금자탑을 세웠다.

## 2. '88서울올림픽 경기대회 군 지원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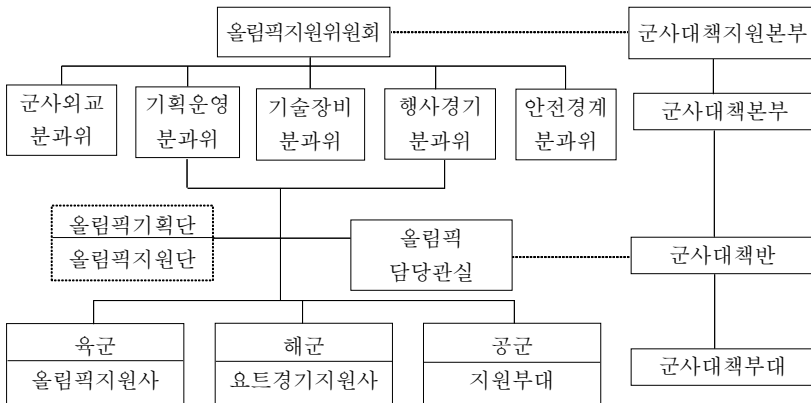
서울올림픽대회에 동유럽 국가를 포함하여 161개 IOC 회원국이 참여 의사를 표명해옴으로써 성공적인 대회를 위한 선결 조건으로 경기 운영을 위한 전문 인력과 장비를 확보하고 참가 선수, 임원이나 관람객에 대한 안전보장이 요구되었다. 당시 북한은 각종 심리전과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감을 조성하여 공산권 국가들의 올림픽 참가를 저지하고자 하였다(육군본부 2017, 22-30). 참가 의사를 밝혔던 국가 중에서 서로 적대관계에 있던 분쟁 당사국 선수와 올림픽 패밀리가 참가함에 따라 국제 테러 활동이 예상되기도 하였다(국방부 1990b, 110).

정부는 올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관계 법률 및 법령의 제정하고 정부 부처별 지원사업을 시달하였다(법률 제3611호 1982). 국방부는 전력증강사업, 한미연합 방위태세 강화에 추가하여 올림픽대회와 직접적

으로 관련하여 4,163km의 성화봉송로 경계, 264개 올림픽 관련 시설에 대한 외곽경계, 11개 군 전담 경기장이나 시설의 경비, 대회 관련 200여 개소의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방호 임무를 부여받았다(국방부 1990, 115). 이 밖에도 대회 운영에 필요한 인력, 각종 장비와 물자를 지원하고 상무체육관, 육사 화랑양궁장 및 서애관 등 대회 관련 17개 시설의 대여 및 올림픽 대회에 출전할 군 선수의 양성을 지원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국방부는 정부 지원체계가 구성되고 정부 방침이 설정됨에 따라 아래 <그림 1>과 같이 국방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올림픽지원위원회’를 1982년 1월 비상설로 설치하여 운용하였다. 이후 올림픽기획단 집행기능을 부여하여 ‘올림픽지원단’으로 개편하여 예하에 국방부 ‘올림픽지원부대’를 창설하였다. 대회 운영 분야의 지원을 위해 국방부 인사국에 올림픽지원부서, 육군에 ‘서울올림픽지원사령부’, 해군에 ‘요트경기지원단’을 창설(1988.2.23.)하였다(국방부 2011, 629-630).

<그림 1> 서울올림픽 경기대회 국방부 지원체계



출처 : (국방부 1990b, 122).



### 3. '88서울올림픽 경기대회 군 지원활동

#### 1) 군 지원계획 수립

국방부는 올림픽조직위원회의 요청(1987.3.3)에 따라 가능한 소요량을 최대한 지원하되 임무에 부합하고,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장비를 제외한 인력(9,146명), 장비(731점), 물자(8만 3,661점), 17개 소의 시설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국방부는 합참과 각 군의 올림픽 지원계획을 통합·조정하여 「'88서울올림픽대회 군사대비 세부시행계획」(1987.10.)을 완성하였다. 국방부는 지원계획을 「정부종합 안전대책 세부시행계획」에 반영(1988.2.)하여 유관부서와 대회운영위원회 측과 상호협조 및 연계된 군사대책을 시행하였다.

#### 2) 군 병력, 장비·물자 및 시설지원

올림픽대회 기간 중 경기장 내외곽, 선수촌 및 기자촌 등과 관련된 안전경비와 대회운영을 위하여 병력(11만 4,423명), 항공기와 함정 등 장비(851대), 침구류 등 물자(9만 1,528점)와 국군체육부대 등 17개의 시설을 지원하였다(국방군사연구소 1998, 404-405; 육군본부 1988.3.). 육군은 올림픽지원사령부를 근무지원단 등 9개 부대와 개회식과 폐회식 행사 등 식전분야와 경비 분야 시설지원을 담당하는 12개 임무형부대를 편성하였다.

해군은 해군본부 작전참모본부장을 단장으로 올림픽지원단을 창설(1988.3.10.)하고 예하에 요트경기지원사령부를 편성하여 지원업무를 수행하였다. 요트경기를 지원하기 위해 올림픽지원단, 요트경기지원사, 요트경기지원단, 경기운영지원대, 본부 지원대, 행사지원대를 편성하였다.(국방부 2011, 632) 공군은 공중에서 제반 안전대책을 수행하고 공중수송, 개회식 축하 비행 및 특수차량(터그카) 지원, 보도 및 의무분야 헬기 지원, 성화의 항공수송대비 등 대회 운영을 지원하였다(국방부 2011, 633).

군은 1988년 5월 초부터 10월 말까지 180여 일간 서울, 경기,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지에서 대회 운영을 지원하였다. 지원 분야는 식전행사,

대회 경기, 선수촌, 기자촌, 수송, 통신 의무, 행정 분야 등이었다. 육군은 이러한 운영 분야에 많은 인력과 장비 및 물자, 시설물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대회의 경제성을 높이는 한편 대회 관련 현장에 투입된 자원봉사자, 조직위 임원과 함께 근무함으로써 민군 상호 간의 이해를 증진하였다. 군에서 지원된 요원들은 사전에 『군지원요원 업무지침서』에 따라 업무별 지원요령에 대해 사전 교육을 통해 한국을 대표하는 외교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하였다(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1988, 71-75).

식전문화행사로 군은 성화봉송, 선수촌 행사, 개폐회식(태권도, 고공강하, 농악 및 바라춤 출연, 취주악단, 팡파르 등), 시상식 등을 지원하였고, 레슬링 및 육상경기 보조에 국군체육부대, 조정 경기 보조는 육군 제00도하단, 양궁 경기 보조는 육군사관학교, 요트경기보조는 해군에서 전담하여 지원하였다(<https://www.youtube.com/watch?v=KeWSC7iCnpM>, 검색일: 2021.7.4.).

육군은 근무지원을 위하여 선수촌지원단, 기자촌운영단, 수송지원대대, 통신지원, 의무지원, 행정 및 근무지원 활동을 전개하였다. 군은 선수촌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올림픽지원사령부에 연대급 규모의 선수촌 지원단을 편성하여 13개 직무 부서에 인력(2,208명)과 숙소 침구류(4만 5,403점)를 지원하였다. 또한, 육군은 연대급 규모의 기자촌 지원단을 편성하여 인력(1,081명)과 숙소 침구류(7만 7,803점)를 36개 기자촌 숙소에 제공하였다. 또한, 태릉국제사격장(사격), 화랑양궁장(양궁)과 국군체육부대 상무체육관(레슬링)을 지원하였다(육군본부 1989, 63-73).

해군은 인력(1,236명), 함정(37척), 고무보트(42척)를 포함한 장비(16품목 174대), 물자(10품목 519점)를 요트경기 식전문화행사, 경기 운영, 구조활동, 선박 정비, 해상보호, 통신지원, 통역 및 안내 보조, 의무, 행정 및 근무 분야에 지원하였다(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15, 197-198).

대회기간 중 성화 봉송로 답사, 각종 공중촬영 보도 및 통신 중계업무, 축하 비행, 환자 수송, 고공강하 등에 육군항공대 헬기(2개 종 18대), 해군의 헬기(2개 종 8대)를 지원하였다. 공군에서는 전투기, 연습기, 수송기, 헬

기 등 8개 종 총 58대와 전문 조종인력 390명을 지원하였다(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09, 443).

### 3) 선수단 육성 및 지원

국군체육부대는 25개 경기종목 선수 380명을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경기종목별로 단위대를 편성하여 운영하였다. 사격선수 육성은 대한사격연맹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민군 간 국가대표 선수의 통합훈련체계를 구축하고 단계별 훈련계획 아래 경기 세부 종목별로 권총반, 소총반, 이동반 등 3개 반으로 단위대를 구성하여 군과 민간선수 38명을 통합하여 훈련을 시작하였다.

국군체육부대와 육군88사격훈단은 88서울올림픽 경기대회에 14개 종목 50명이 국가대표로 출전하여 금메달 2개 등 총 5개의 메달을 획득하였다. 특히 사격 종목에서는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은메달을 획득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군이 국가의 보루라는 안보적 측면 외에 선수 개개인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적인 행사에 동참하여 국가 위상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였다.

## 4. 군 지원활동 성과 및 평가

'88서울올림픽 경기대회는 '건국 이후 최대의 국제행사'로 불릴 정도로 국가적·국민적으로 많은 관심과 지지를 받는 가운데 준비가 이루어졌다.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를 중심으로 범민족올림픽추진중앙협의회와 해외동포위원회 등 민간조직이 설립되어 조직위원회를 후원하고 지원하였다(서울역사편찬원 2019, 507-508).

군은 '88서울올림픽 경기대회가 보다 완벽한 대회가 되게 하도록 대회 전 기간에 걸쳐 많은 병력과 항공기 및 함정 등을 비롯한 장비와 물자를 지원하였다. 군의 세부적인 지원활동은 올림픽 23개 전 종목에 걸쳐 경기 운영 행정에서부터 경기 진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직무 분야에서 이루어졌다. 경기 시설을 지원할 때는 경기 특성과 개최 장소 등을 고려하여 각 군

에서 전담부대 지정함으로써 지원 효과를 높였다. 또한, 86개 동의 선수촌과 36개 동의 기차촌을 지원하기 위해 3,000여 명의 병력과 4만 5,000여 점의 물자를 지원하였다. 이 밖에도 군 소속의 국군체육부대와 88사격훈련단에서 50명의 선수를 출전시켜 5개의 메달을 획득함으로써 한국이 종합 4위로 부상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경기 지원활동 외에 군은 1980년대 초부터 연구·분석하여 시행한 제반 군사 사항을 올림픽대회의 안전과 연계 시행하여 대회의 안전을 보장하였다. 군은 전 참가단의 입국에서부터 행사, 경기, 관광과 출국에 이르기까지 모든 지역의 안전과 경계를 담당하였다. 북한의 도발 행위와 외부 위해(危害)기도 사례가 전혀 없는 가운데 치러진 성공적인 대회 개최는 이러한 군의 안전·경계 활동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이었다(국방부 1990b, 405). 군의 이러한 활동은 다분히 본연의 업무였으나 그 성과는 전체 국군장병의 사명감과 책임감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었다.

군은 '88서울올림픽 경기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무력 사용 이외의 영역에서 국가이익 달성에 이바지할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군의 지원활동은 군이 보유한 인력과 장비, 물자를 비롯하여 특성화된 환경에 적합한 지원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었다. 특히, 국군체육부대와 육군88사격훈련단 창설과 군의 민간 선수단에 대한 훈련지원은 한국의 스포츠 인프라를 확장하는 데 이바지하였다. 군의 '88서울올림픽 경기대회 개최 지원활동은 향후 1990년대부터 지속해서 이루어졌던 국제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군과 체육계, 민군 협력 체계 구축의 모델이 되었다.

그러나 국가시책사업인 '88서울올림픽 경기대회를 지원하기 위해 '86서울아시아 경기대회 이전부터 많은 수의 병력과 장비, 물자 및 시설을 지원하게 됨으로써 군에 피로도를 가중하는 부작용을 유발하였다. 또한, 군이 본래의 기능인 전쟁과 도발 억제에 위한 역할에서 벗어나 군사정권의 치적을 쌓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 IV. 2018 평창동계올림픽 경기대회 군 지원활동

### 1.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개요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는 강원도 평창 강릉, 정선 일대에서 2018년 2월 9일부터 2월 25일까지 17일간 개최되었다. 참가 규모는 93개국(선수단 및 미디어) 등 5만여 명이 참가하였고, 7경기 15종목(102개 세부 종목)의 경기를 치렀다(국방부 2018, 12). 평창동계올림픽은 1988년 서울하계올림픽이 개최된 지 30년 만에 대한민국에서 개최된 두 번째 올림픽이자 최초의 동계올림픽으로, 아시아동계올림픽 역사상 일본의 삿포로와 나가노에 이어 세 번째로 개최되었다. 또한, 평창동계올림픽은 2021 도쿄하계올림픽,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으로 이어지는 올림픽 아시아 시대의 서막을 열었다.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로 대한민국은 1988 서울하계올림픽, 2020 FIFA 월드컵,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 등 세계 4대 메이저 스포츠대회를 모두 개최하는 위업을 달성하였다(강원도 2020, 587-5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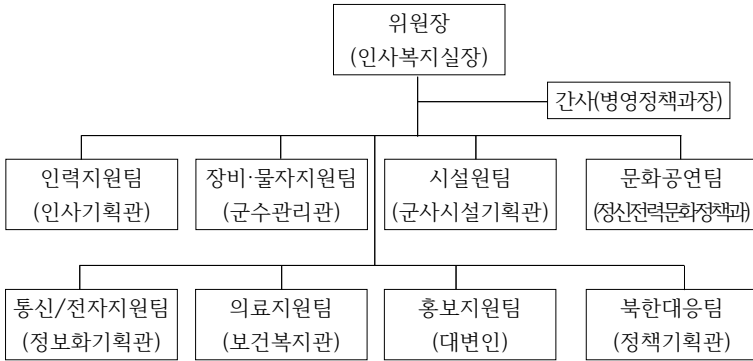
### 2.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군 지원체계 구축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국회, 정부 부처, 대한체육회 등 정·관계 인사와 관계기관과 단체 등이 참여하여 2011년 10월 19일 출범하였다.

국방부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국가등의 지원), 제26조(대회지원위원회), 제28조(대회 관련 시설에 대한 지원)(법률 제17598호 2020.12.8.)에 의거 그동안 비상설기구로 운용되던 국방부 지원위원회를 <그림 2>와 같이 상설기구로 전환(2017.7.1.)하여 임무를 수행하였다.

국방부 올림픽 지원위원회는 대회진행 및 경기 운영 인력지원, 장비·시설 지원과 경비·대테러작전, 경호작전지원, 문체부, 조직위 등과 관계기관 협조를 비롯하여 대회 운영 전반에 대해 지원하도록 하였다(국방부 2018, 19).

<그림 2> 국방부 지원위원회 편성



출처: (국방부 2018, 19).

또한, 대테러대책본부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테러안전대책)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대테러·안전대책 등) 제3항(법률 제17598호 2020.12.8.)에 따라 대테러센터를 주축으로 총 19개 기관으로 구성되었다.

국방부는 대비태세를 구축한 가운데 경비작전을 통해 성공적인 행사개최를 군사적으로 보장하고 경비작전을 위해 00경비작전사령부를 창설하였다. 경비작전사령부는 GOP 및 해안 접적지역에서 군사대비태세 유지, 경기장 및 지원시설에 대한 경비작전, 강원 대테러안전통제단의 안전활동 및 경찰 주도의 대테러작전 지원, 관계기관·부대와와의 긴밀한 협조 등의 임무를 부여받았다(국방부 2018, 16-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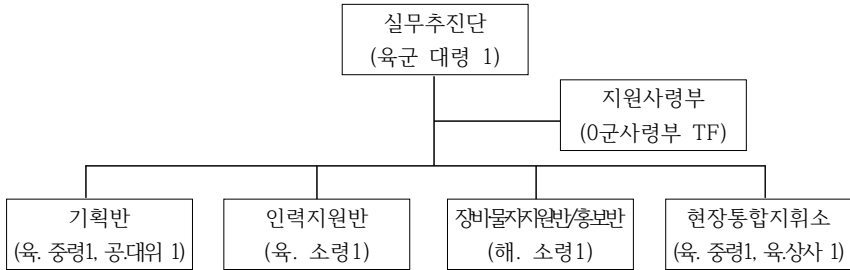
### 3. 2018 평창동계올림픽 경기대회 군 지원활동

#### 1) 군 지원활동 계획수립

국방부는 평창동계올림픽을 지원하기 위해 실무추진기구를 올림픽지원 TF로 상설편성(2017.7.1.)하였다. 대회가 임박하면서 지원 인력과 장비, 기타 행사지원 등 지원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지원TF 인원을 증편하여 아

래 <그림 3>과 같이 평창동계올림픽지원 국방부 실무추진단으로 확대 편성(2017.10.16.)하였다. 실무추진단은 기획반, 인력지원반, 장비·물자지원반, 현장통합지원반 등 총 4개 반으로 편성하여 임무를 수행하였다.

<그림 3> 평창동계올림픽 경기대회 국방부 지원체계



출처: (국방부 2018, 19).

지원사령부는 대회 운영지원 기반체계 구축으로부터 대회 운영지원까지 총 3단계로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여 임무 수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올림픽 기간 평창지역에 현장지휘소를 개소하여 조직위와 연계, 실시간 요청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였으며 실시간 인원 통제 및 사고 예방 활동을 시행하는 등 안정적인 지원 임무를 수행하였다.

## 2) 군 병력, 장비·물자 및 시설 지원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에서 국방부에 행사를 지원한 인력, 장비 및 물자 등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 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2015.10.30.)해 오며 따라 군은 가용한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방침으로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군은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기 어려운 전문성, 책임성이 필요한 분야에 우선하여 군인력을 지원하였다. 대회 운영 및 경기 진행을 위한 인력지원은 운전 및 도핑 시료 운반, 종합운영센터와 경기장 통제소 운영, 의장 및 통역 지원, 경기지원, 의료, 개·폐회식 공연 참가, 교통관리, 대회안

전관리 및 시설자산보호, 제설지원, 보안요원 및 안전통제와 경비·경호대 테러분야에 1만 1,767명(대회지원 7,992명, 경비작전 및 대테러지원 3,775명), 연인원 34만 239명을 지원하였다(국방부 2018, 21).

시설 지원은 대회조직위에서 지원인력의 부족한 숙소를 해결하기 위해 모듈러(modular)를 국방부와 공동으로 구매하여 올림픽 종료 후 군에서 사용하도록 요청해 오에 따라 상호협조하여 191동(79억 원)을 지원하였다(국방부, 2017.1.20.). 이 밖에 방송사 촬영 헬기를 위한 강릉·원주헬기장을 지원하였다. 의료물자 및 장비는 응급의료팀을 포함한 응급후송헬기 1대 등 의료장비·물자(25종 456점)를 지원하였고, 제설장비는 기상예비특보 발령 등에 대비하여 제설장비 5종 55대 등 연 912대를 지원하였다.

### 3) 군 선수단 육성 및 지원

비인기 동계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국군체육부대에 동계종목(노르딕 등 8개 종목, 49명)을 아래 <표 2>와 같이 2013년부터 한시적으로 편성하여 선수를 양성하였다. 국군체육부대에서는 국제대회를 대비하여 체육과학연구구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운동생리, 스포츠심리, 운동역학 등 과학화 장비 28종을 지원하여 경기력 향상을 지원하였다(국군체육부대 2017, 123-25).

총계	기존 운용	한시적 추가 운용(2013.1.~2019.9.)						
		아이스 하키	빙상	스키	봅슬 레이	스켈 레톤	루지	컬링
49명	바이 애슬론 3명	22명	6명	5명	5명	2명	2명	4명

<표 2> 국군체육부대 한시적 선수단 운용

출처: (국방부 2017.7.4.)

평창동계올림픽대회에는 아이스하키, 루지, 바이애슬론 등 종목에 9명의 체육부대 선수가 국가대표로 출전하여 한국의 종합 7위 달성에 이바지하였다.



#### 4. 군 지원활동 성과 및 평가

군은 성공적인 성화봉송 행사를 위하여 최초 성화 도착 행사 시 전 통악대 지원을 시작으로 세계 최초로 군함(문무대왕함) 성화봉송, 공군 블랙이글스 성화봉송 축하 비행 및 육군 수리온 헬기 성화봉송, 최북단 DMZ 지역 성화봉송 행사를 지원함으로써 올림픽 봄을 조성하였다. 경기진행과 대회 운영을 위해 군 병력 5,300여 명이 투입되었으며, 운전 및 도핑시료 운송, 종합운영센터와 배뉴커뮤니케이션, 의장 및 통역지원, 경기지원, 의료, 개·폐회식, 교통관리, 대회안전 관리 및 시설자산 보호, 제설지원, 보안요원 및 안전통제, 경호안전 등의 전 분야에서 지원하였다. 또한, 군은 동계종목 저변확대를 위하여 국군체육부대에 아이스하키 등 8개 종목 49명을 편성하여 과학적 훈련시스템을 제공하였다.

개막식 4일을 앞두고 노로바이러스로 인해 민간 보안요원 1,200여 명이 격리됨에 따라 군 장병 1,000여 명을 최단 시간 내 투입하여 보안업무의 공백을 방지하였다(국방부 2018.2.5.). 군은 평창동계올림픽대회 기간 중 연인원 23만 4,000여 명의 인력지원으로 약 173억 원의 경비 절감 효과를 통해 경제 올림픽 달성에 이바지하였다(국방부 2018.2.23.).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중 폭설로 인해 경기 운영이 제한되자 조직위원회에서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군 병력 지원을 요청하자, 국방부는 군 본연의 임무와 무관하게 사역이 이슈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제설장비나 제설제 등을 우선하여 지원하였다. 이렇듯 다양한 분야에서 군의 지원활동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외국 언론에서 ‘무장군인이 거의 눈에 띄지 않았음에도 놀랍도록 안전한 올림픽’이라는 극찬을 받았다(국방부 2018, 21).

이처럼 군은 「평창동계올림픽지원 특별법」에 따라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중 인력, 장비와 시설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국가적 행사를 지원하

는 장병들은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면서 국민과 함께하는 군대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군 지원 인력 중 사고로 인한 인명 손실이 발생함으로써 지원 병력 관리에 허점이 노출되기도 하였다.

## V. 결론

한국 현대사에서 군은 6·25전쟁 이후 전후 복구를 비롯하여 국토건설 등 경제개발을 비롯한 근대화 과정에서 다양한 소임을 수행해 왔다. 전통적인 군의 역할은 국가방위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에 있다. 그러나 탈냉전기에 접어들면서 대규모 전쟁에 의한 위협 가능성의 감소와 한국의 국력이 신장하면서 군의 역할도 많은 변화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군은 국토방위의 기본 임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국가시책인 국제스포츠 경기대회 개최를 지원하는 임무를 부과하여 수행하게 됨으로써 전통적인 역할에 비해 임무 수행의 범위와 역할이 확대되었다. 군의 '88서울올림픽 경기대회 지원 경험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유무형의 자산이 되었다. 또한, 군의 역할이 무력의 관리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시책 지원을 비롯한 다양한 비군사적 분야에서 충분히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88서울올림픽 경기대회 및 2018 평창동계올림픽 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민관군의 협력 체계가 형성되었다. 군도 정부의 방침에 따라 가용한 역량을 발휘하여 최대한 지원함으로써 양개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에 일익을 담당하였다. 군은 양개 대회의 개최 확정 시부터 폐막식에 이르기까지 병력, 장비, 물자 및 시설을 지원하여 국가의 위상을 드높이고 한국이 스포츠 강국으로 부상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양개 대회 동안 군이 수행했던 역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군은 정부의 국제스포츠 경기대회 개최를 위한 기본계획에 따라 성

화봉송, 식전행사, 개·폐막식, 경기 진행 시 군은 전통문화와 태권도를 알리는 데 이바지하였고, 헬기 등의 군 장비를 동원하여 지원하였다. 둘째, 군은 다양한 분야에 병력과 장비, 물자 및 시설을 지원함으로써 국제스포츠 경기대회 개최에 드는 인력 및 경비를 절감하였다. 군은 등록센터 운영 요원을 비롯하여 각종 행정, 보급원 및 통역병 등의 병력과 침구류 등의 물자 및 군 시설을 지원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 셋째, 군 특성에 부합하는 경기종목과 선수단을 육성하였고, 민군 통합훈련으로 과학적인 훈련 프로그램 지원, 지도자 양성 및 비인기 종목에 대한 저변확대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양개 대회에서 군이 지원하고 교육했던 종목에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넷째, 군은 체육부 등 정부 부처를 비롯하여 다양한 민간 스포츠연맹 등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국제스포츠 경기대회 개최 준비의 효율성을 증대하였고, 선수양성 및 관리 체계의 일원화와 과학화 등을 통해 한국스포츠의 국제적 위상을 드높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한국은 30년 전 서울올림픽대회를 비롯하여 세계 4대 국제스포츠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국가가 되었다.

이러한 군의 역할이 한국의 체육발전에 갖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공적인 국제스포츠 경기대회 개최를 위해 군은 정부 및 민간단체들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대회 준비단계부터 종료 시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이러한 지원활동은 경기 외적인 부분에서 한국스포츠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였다. 둘째, 군이 선도하여 도입한 과학화 훈련 프로그램, 지도자 양성 및 지도요령 개선 등은 한국스포츠가 질적으로 한 단계 발전하는 데 이바지하였다. 셋째, 군 소속의 국군체육부대, 육군88 사격훈련단 등은 병역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선수들에게 지속하여 기량을 유지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였다. 아울러 군은 비인기종목에 대한 저변확대, 꿈나무 육성프로그램 운용 등을 통해서 한국스포츠의 현재와 미래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였다.

군의 역할은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남북한 분단 상황의 지속, G2 간의 패권 경쟁 등으로 군사적 위협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우주, 사이버 위협 등 새로운 유형의 위협이 등장하고 있

다. 또한, 민군 간의 교류와 협력이 증대됨으로써 군에게 새로운 역할을 주문하고 있다. 군은 이러한 모든 유형의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 군사적 위협과 비군사적위협 간의 균형적인 대처를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이 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법률 제17598호. 2020.12.8.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2015. 10.30.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공적 개최를 위한 국방부지원 요청사항」
- 강원도. 2020. 『열정을 담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백서』 강원 춘천: 강원도.
- 국군체육부대. 2017. 『2017년 부대사』. 문경: 국군체육부대.
- 국방대학교. 2015. 『국가안전보장론』. 논산: 국방대학교.
- 국방부. 1987. 『'86서울아시아경기대회지원』. 서울: 국방부.
- 국방부. 1988. 『국방백서 1988』. 서울: 국방부.
- 국방부. 1990a. 『국가발전과 군의 역할』. 서울: 국방부.
- 국방부. 1990b. 『서울올림픽대회 군지원 활동』. 서울: 국방부.
- 국방부. 2011. 『국방사 제5집』. 서울: 국방부.
- 국방부. 2017.1.20. 「2018 평창동계올림픽 준비 관련 참고 보고」
- 국방부. 2017.7.4.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올림픽대회 제 12차 지원위원회 관련 참고 보고」
- 국방부. 2018.2.5. 「올림픽 조직위 민간보안요원 노로바이러스 발생 군 지원 대책(보고)」
- 국방부. 2018. 『2018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대회 지원백서』. 서울: 국방부.
- 국방군사연구소. 1998. 『건군 50년사』. 서울: 국방군사연구소.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9. 『국방편년사 1986-1990』.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5. 『국군과 대한민국 발전』.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20. 『국방 100년의 역사』.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 국군의무사령부. 2004. 『국군의무사령부 50년사』. 성남: 국군의무사령부.

- 김경진. 2021. “1988년 서울올림픽의 역설: 평화 이벤트는 어떻게 한반도 평화를 가로 막았나.”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43집 1호, 53-92.
- 김명섭·양준석. 2014. “서울올림픽 유치의 정치외교사: 1981년 서울은 어떻게 올림픽 개최권 획득에 성공했나?.” 『국제정치논총』 제54집 4호, 271-302.
- 김산효. 2019. “서울올림픽과 평창동계올림픽 개·폐회식 전통문화예술프로그램의 변화양상 연구.” 『무형유산』 제6집, 185-218.
- 김영갑. 2018.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의 사회문화적 담론 분석.” 『인문과학연구』 제33집, 163-183.
- 김재우·최지훈. 2018. “88서울올림픽의 유치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사회학지』 제23집 4호, 57-73.
- 김지훈·최승아. 2020. “국가대표 사격감독 배병기가 경험한 서울아시안 게임과 서울올림픽의 기억.” 『구술사연구』 제11집 2호, 49-81.
- 대한민국 정부. 1987. 『서울아시아경기대회 백서』. 서울: 대한민국 정부.
- 박경호·옥광·박장규. 2011. “한국 스포츠 외교의 태동-서울올림픽 유치의 유산.” 『한국체육사회학회지』 제16집 2호, 47-57.
- 박보현. 2018. “스포츠 메카 이벤트의 경제발전 담론: 1988 서울올림픽과 2002 한일월드컵을 중심으로.”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제21집 4호, 788-812.
- 박기안·박철·정문건 외 1명. 1988. “88서울올림픽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 『마케팅』(1988.11), 25-36.
- 백종천 외. 1994. 『한국의 군대와 사회』. 서울: 나남출판사.
-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1988. 『군지원요원 업무지침서』 서울: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 서울역사편찬원. 2019. 『서울 체육사』 3. 서울: 서울역사편찬원.
- 육군본부. 1988.3. 「부대창설준비용 차량보급 및 올림픽대회 지원요소 준비지시 의뢰」
- 육군본부. 1989.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 육군지원사」. 서울: 육군본부.
- 육군사관학교. 1996. 『국가안보론』. 서울: 육군사관학교.
- 이지연·손정우. 2021. “올림픽 문화프로그램의 구성과 특성의 분석.” 『한

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제15지 4호, 187-206.

임도빈·양인·권형근·한병훈. 2016. “올림픽 거버넌스 조직현상: 서울올림픽과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의 비교.” 『한국조직학회보』 제13집 3호, 149-182.

장지량. 2006. 『빨간 마후라』. 서울: 이미지북.

조남진. 2010. 『국가안보의 이해』. 서울: 노드미디어.

한국행정연구원. 2014. 대한민국 역대 정부 주요 정책과 국정운영 전두환 정부.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화랑대연구소. 1992a. 『한국의 민군관계』. 서울: 화랑대연구소.

화랑대연구소. 1992b. 『한국군과 국가발전』. 서울: 화랑대연구소.

해군본부. 1999. 『반세기를 넘어서』. 계룡: 해군본부.

<https://www.youtube.com/watch?v=KeWSC7iCnpM>(검색일: 2021/07/04).

<https://www.youtube.com/watch?v=qaX7K2mxqf0>(검색일: 2021/07/04).

투고일 : 2021년 11월 15일 . 심사일 : 2021년 11월 25일 . 게재확정일 : 2021년 12월 4일

\* 최정준은 연세대학교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선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한국군 전력증강사 1』(공저), 『국방 100년의 역사』(공저), “주한미군 철수가 한국군의 자주적 방위력 개선에 미친 영향”, “대북포용정책이 국방정책에 미친 영향분석” 등 다수의 논문을 저술하였다.

<Abstract>

**What did the Korean Military Do in Hosting International Sports Competitions? : Focusing on the 1988 Seoul Olympic Games and the 2018 Pyeongchang Winter Olympic Games**

Choi Jung Joon

(Institute for Military History, MND)

This study analyzed the role of the Korean military when holding the international sports competition, as a national policy. Traditionally, military forces have used to protect national security and properties, however, it showed that military forces can support various non military sectors. The Korean military supported lots of manpower, equipment, supplies and facilities for the successful hosting of the 1988 Seoul Olympic Games and the 2018 Pyeongchang Winter Olympic Games. it also contributed to improve some special branch of athlete's performance by training and supporting them. The public-private, military combined cooperation system, organized for the successful hosting of the two competitions, later became a support model when Korea hosts international sports competitions beyond 1990. In addition to the basic mission of national defense, the military played a key role in emerging as Korea's sports diplomacy and sports powerhouse. As the military's role is expanding to non-military fields as well as traditional military roles, it need to maintain a balance to properly cope with military threat and non-military threat was raised.

**Keywords** : International Sports Competition, 88 Seoul Olympic Games, Pyeongchang Winter Olympic Games, military threat, non-military threat.